

목포시 '치매 극복 선도도시' 자리잡아간다

목포 치매안심센터 개소 1년

예방교실·인지강화 프로그램 등
연간 2만1000여명 이용
선별검사로 확진자 116명 발굴
치매관리비 2억원 지원

목포시가 치매 극복과 조기 진단을 위해 지난해 4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한 이후 현재(3월말 기준)까지 2만1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목포시 보건소에 따르면 개소 이후 7333건의 치매상담 및 사례관리를 통해 치매 관리비로 모두 6339건에 1억9276만원의 지원을 지원했다.

특히 치매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관내 65세 이상 9818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사를 실시했다. 이 선별검사를 통해 지난해에만 116명의 확진자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는 개소 이후 지난 1년 동안 내부 프로그램으로 치매예방교실 3개 반과 인지강화프로그램 2개 반을 운영했다. 치매예방 교실은 5072명이 이용했고, 인지강화 프로그램은 684명이 참여했다.

또 센터 외부 프로그램으로 경로당 치매 예방 프로그램과 복지관 인지강화 프로그램을 운영, 각각 3974명과 2275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 프로그램은 주로 음악·원예·공예·



목포시가 치매 극복과 조기 진단을 위해 지난해 4월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한 이후 현재(3월말 기준)까지 2만1000여명이 센터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내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되는 운동교실 모습.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인지각 등으로 주 2~3회에 걸쳐 복지관 5개소와 경로당 20개소에서 실시했다.

현재 센터 내에는 전문 인력 10명(간호사 6, 사회복지사 3, 작업치료사 1)이 배치돼 있고 3명의 협력의사가 위촉돼 있다. 협력병원으로는 목포시의료원, 목포기독병원, 세안종합병원 등 3곳이다.

이 밖에 치매 환자와 치매 가족을 위한 초기상담 및 치매 조기 검진, 1대 1 사례관리, 치매 등록 및 관리, 치매 치료비 지원, 치매 인식개선 및 교육 등 다양한 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센터는 지난달부터 지역 190개 경로당과 복지관 등 치매안심센터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을 대상으로 치매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치매인식 개선을 홍보교육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변효심 목포시 하당 보건지소장은 "치매나 우울증과 같은 노인 정신질환의 경우 조기예측과 예방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면 큰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서 "치매 관련 인프라 구축을 통한 원스

톱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 극복 선도도시로 자리매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목포시 지역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3만4800명으로 전체 인구의 15%를 차지해 이미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현재 치매 고위험군(75세 이상, 2018년 말 기준)은 7700명으로 2017년 5160명에 비해 2000명이나 증가했다. 이 가운데 치매 확진자는 2135명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통계로 본 목포의 하루

사망자 수, 출생아 앞질러 '인구절벽' 시작 하루 90명 전입·99명 전출...인구유출 심각

목포에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처음으로 앞질러 인구절벽 현상이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발간된 2018 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1431명이 태어났고 1451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하루에 90명이 목포시로 주민등록을 옮긴 반면 99명이 목포시를 빠져 나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출생아 유출이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연간 전입 인구는 3만2780명, 전출은 3만6115명이었다.

또 매일 3쌍(연 1050쌍)이 결혼했지만 1쌍(연 539쌍) 이상이 이혼한 것으로 나타났다.

목포시 인구는 총 23만7247명에 10만845세대로 1세대 당 2명이 불과했다. 동별로는 부주동이 2만4692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상동 1만9093명, 용해동 1만8462명, 신흥동 1만7707명 순으로 나타났다. 5000명 미만도 만호동과 죽곡동 2곳에 달했다.

목포 지역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5개소를 비롯해 병원 13개소 등 총 284곳에 4413명의 의료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는 총 9만8001대가 등록돼 전년 대비 2000대가 가량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가 7만7307대, 화물차는 1만5925대였다.

특히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181건의 화재로 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화재건수는 10건 늘었지만 인명과 재산피해는 큰 폭으로 줄었다. 또 교통사고는 1543건이 발생해 31명이 사망했다. 교통법규 위반은 총 4만8667건으로, 속도위반이 3만5793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1213건, 무면허 운전 290건이 적발돼 시민들 사이에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는 9875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 특별범죄가 432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폭력범죄 2036건, 지능범죄 1625건, 절도범죄 1015건이 뒤를 이었다.

목포지역의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5개소를 비롯해 병원 13개소 등 총 284곳에 4413명의 의료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동차는 총 9만8001대가 등록돼 전년 대비 2000대가 가량이 증가했다. 이 가운데 승용차가 7만7307대, 화물차는 1만5925대였다.

특히 사건사고를 살펴보면 181건의 화재로 5명의 인명피해를 입었고 5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화재건수는 10건 늘었지만 인명과 재산피해는 큰 폭으로 줄었다.

또 교통사고는 1543건이 발생해 31명이 사망했다. 교통법규 위반은 총 4만8667건으로, 속도위반이 3만5793건으로 73.5%를 차지했다.

무엇보다 음주운전 1213건, 무면허 운전 290건이 적발돼 시민들 사이에 아직도 안전 불감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범죄는 9875건이 발생했다. 범죄 유형별로 특별범죄가 4328건으로 절반을 차지했고 이어 폭력범죄 2036건, 지능범죄 1625건, 절도범죄 1015건이 뒤를 이었다.

목포지역의 의료시설은 종합병원 5개소를 비롯해 병원 13개소 등 총 284곳에 4413명의 의료인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맛 하면 목포” 떠올리도록 브랜드화·메뉴 개발 올인

12일 서울서 '맛의 도시 선포식 여는 김종식 목포시장

“대한민국에서 맛이라고 하면 전라도고 전라도 맛의 본거지가 목포인데, 아직까지 잘 알려지지 않고 브랜드화 되지 않아서 정식으로 맛의 수도를 꿈꾸는 선연적 의미로 서울 한복판에서 '맛의 도시 목포'를 선포하게 됐습니다.”

12일 서울서 맛의 도시 선포식 갖는 김종식(사진) 목포시장은 전국 최초로 '맛의 도시 목포' 선포식을 갖는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김 시장은 '목포가 왜 맛의 도시인가'라는 질문에 "목포 맛의 3대 비결은 '신선한 식재료 집결지' 이면서 '요리하는 사람들의 스토리'가 있고 '맛을 잘 알고 즐기는 사람들'이라는 데 있다"고 명쾌하게 정의했다.

그는 또 "그동안 뛰어난 맛에 비해 알려지지 못했던 목포 음식의 가치를 전국적으로 알리고 '맛' 브랜드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며



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에서 '맛'하면 누구든지 자연스럽게 목포를 떠올리도록 만드는 게 목표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 시장은 "맛의 도시 목포가 구호로만 되는 건 아니라며 목포 9미를 맛의 핵심으로 삼아 널리 알려나가면서 전통과 현대를 결합시킨 단품메뉴와 간편 메뉴를 발굴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그는 "부담 없이 편하게 먹을 수 있는 '단품 메뉴'로 세계비파우딩(세발

낙지+꽃게+비파우딩), 흥어 누룽지탕, 일큰 맑은 갈치찌개, 또 '간편 메뉴'로 낙지+꽃게+계란, 비파에이-호(호떡), 김부각 낙지 짜조 등을 레시피 공모를 통해 발굴했다"고 소개했다.

목포시는 이번 서울 선포식에서 목포에서 난 식재료를 활용해 만든 임정식 셰프의 '낙지 버거', 이형준 셰프의 '민어 파이', 김성운 셰프의 '우럭 부야베스', 이충후 셰프의 '홍어 스테이크' 등 새로 개발한 메뉴들도 선보일 계획이다.

끝으로 김 시장은 "맛의 도시 목포" 브랜드화를 위해 4000여명에 달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외부 전문가의 점검을 통해 목포음식을 대표하는 '오피스 맛집 100곳'을 선정해 맛 지도를 제작하고, 세계가 인정하는 미슐랭 셰프 4명의 목포 식재료 및 음식 탐방, 음식 특화거리 조성, 목포대표 맛집 스토리 발굴 등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목포시 내년 국고 확보 위해 전문가 초청 컨설팅 받는다

목포시가 2020년 국고 확보를 위해 전문가를 초청, 자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해 주목된다.

8일 목포시는 10일 기재부 재정 협력관 2명을 초청해 사업부서 실·과장 과 담당 등을 대상으로 국고 확보요령과 현안사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받는다고 밝혔다.

또 목포시는 이날 현안사업에 대한 현장 방문도 병행 실시해 대응전략과 논리를 적극 개발해 나가기로 했다.

2020년 중점 관리대상 현안 사업은 ▲수산물 수출단지 조성 ▲호남권 생물관 진입도로 개설 ▲국도 1호선 우회도로 개설 ▲북항 배후단지 진입도로 개설 ▲내항 카페리 부두 2선석 건설 ▲신항 배수지 건설 ▲울도 여촌뉴딜 300사업 등 10개다.

/목포=임영춘 기자 lyc@kwangju.co.kr

목포기독병원 지역 최초 최첨단 간 스캔 검사장비 도입

간경변·간암 등 진단을 높여

목포기독병원이 바이러스성 간질환 환자의 급증과 비만 당뇨병 환자 증대에 따라 지방간과 간섬유화, 간경변증 진행 과정 등을 측정해 진단율을 높이는 최신 간 스캔 진단 장비(사진)를 도입했다.

목포기독병원의 장비 도입에 따라 이 지역에서는 최초로 최첨단 장비를 이용해 조직검사 없이도 지방간과 간섬유화를 조기진단해 간경변증과 간암 등의 발병을 예측하고 정확히 진단해 맞춤형 진료 가능성이 높아졌다.

간 스캔 장비는 별도의 준비 없이 5~10분이면 검사가 가능하고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간질환자들에게 대해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해 조기에 간암을 예측해 최선의 치료방향을 제시하고 관련 합병증을 줄이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간 스캔검사 적용 대상은 지방간, 만성 간염, 알콜성 간질환, 당뇨, 대사증후군, 비만 등 모든 간질환에 적용된다.

김경영 목포기독병원장은 "만성 간질환자들에게는 획기적인 장비로 지방간,



간섬유화 조기진단으로 간경변증 및 간암을 미리 예측 가능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보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로 삶에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꾸준한 최첨단 장비를 도입하여 지역의료발전을 선도하여 고객에 신뢰를 받는 병원이 되고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목포=김준서 기자 kjs0533@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의회』 남원시의회가 노력하겠습니다.

유쾌·상쾌·통쾌하게 일하는 의회
희망찬 미래를 설계하는 신뢰받는 의회
비전과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

